

건강부터 생계까지...남구, 폐지 수집 어르신 밀착지원

5월 16일까지 실태조사...실질적 복지 연계 정책설계 병행
일자리 사업 참여 의향·생계·장애·복지서비스 필요 여부 등

광주 남구가 폭염과 건강 악화 우려 속에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생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남구는 5월 16일까지 지역 내 폐지 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조사는 지난해 17일부터 시작됐으며 조사 항목은 단순히 생계 여부뿐 아니라 장애 유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의향, 복지서비스 필요 여부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한다.
또 평소 사용하는 수거 장비 현황, 혹서기·혹한기 선호 물품 등도 파악해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지원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은 주거지 방문 대신 고물상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는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활동 시간이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는 데다, 일과 중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 가정 방문 상담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각 지역 고물상을 수시로 방문해 현장에서 마주치는 어르신들과 직접

접촉하며 실태조사 참여를 독려 중이다.
남구는 단순 통계 수집을 넘어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태조사와 정책 설계를 병행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현장의 수요에 맞는 복지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름철 무더위 속 폐지 수집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일자리 정책인 '자원 재생 활동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자원 재생 활동단은 8월 한 달간 운영된다. 무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인 만큼,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폐지 수집 대신 공공기관 등에서 재활용품 정리나 환경 정화 활동처럼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업무로 구성된다. 근무 시간은 월 8회(총 16시간)이며, 참여 어르신에게는 20만 원의 활동수당이 지급된다. 참여자 모집은 7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5월 폐지수집노인을 전수조사한 결과 광주에서 활동 중인 폐지 수거 노인은 616명이다.
광주시 또한 폐지수집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약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조끼 2735벌, 안전장갑 9655켤레, 손수레용 삼각대 1800개 등을 제공해 왔다. 각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안전띠 350여개, 자전거 후미등 100여개, 경광봉 44개 등 보조장비를 추가로 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동 행정복지센터나 고물상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지원 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당사자들이 정보에 노출되지 못한 채 복지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남구 관계자는 “폐지 수집 어르신 다수가 생계 문제와 건강 위험에 동시에 노출돼 있어 실태조사와 맞춤형 일자리 연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장 중심 정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차 없는 거리에서 아나바다 장터가 운영되는 모습. (광주시 동구 제공)

‘차 없는 거리’서 아나바다 소통의 장터

동구, 장애인의 날 기념식·운동회...수익금 장애인시설에 전달

광주시 동구가 금남로 ‘차 없는 거리’에서 아나바다 장터를 열고 수익금을 장애인복지시설에 전달했다.
동구는 지난 6일 금남로 차 없는 거리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장애인 운동회 ‘너울가자’ 개최를 위해 아나바다 장터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차 없는 거리’는 일시적으로 차량 통제를 제한하는 대신 다양한 테마별 프로그램, 시민 참여형 행사를 열어 지역민이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열리는 행사다. 오는 12월까지 매월 첫째 주 일요일(오후 2시~8시)마다 운영한다.
이날 장터는 광주의 역사성을 담고 있는 금남로 공원에서부터 전일빌딩245 앞까지 들어섰다. 노인장애인복지과와 동구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기부한 물품

들로 채워졌으며, 수익금 총 75만2600원이 발생해 장애인복지시설에 전액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동구가 지난해부터 조성하고 있는 ‘장애인화도시’와도 맞닿아 있다.
동구는 최근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인친화가게 및 미용실 지정, 인문도시 광주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장애인 행사 참여를 돕는 이동형 휠체어 매트 설치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아나바다 장터가 따뜻한 인문 정신을 공유하는 나눔의 ‘장’이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터’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존중과 배려가 깃든 공동체를 만드는 여러 행사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여행업계 활력 불어넣는다... ‘북구상생 힐링투어’ 추진

5천만원 투입 21일까지 25개사 모집

광주시 북구가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의 여행업계를 위한 ‘북구상생 힐링투어’ 사업을 추진한다.
‘북구상생 힐링투어’는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차갑게 얼어붙은 지역의 관광 및 여행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북구에 소재지를 둔 여행업계가 북구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 및 운영하면 최대 19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북구는 구비 5000만 원을 투입해 최대 25개의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21일까지 사업에 참여

할 여행사를 모집한다.
힐링투어 여행 상품은 1일 코스이면서 북구의 관광지 1개소 이상이 포함되어 하고 투어 운영에 제공되는 중식 및 간식과 필요한 차량 임차 시에는 북구 소재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힐링투어에는 최소 15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해야 하고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관광 약자를 우선 모집해야 하며 투어 참여 관광객에게는 1인당 5000원의 이용요금이 부담된다.
북구는 투어 운영 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와 동행해 스토리텔링형 관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북구 관광자원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힐링투어 참여 여행사 접수는 21일까지다. 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관광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계획 적정성, 북구 관광지 홍보방안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선정된 여행사는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관광 상품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참여하고 싶은 여행사는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이메일(bulldozer79@korea.kr)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체육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지원책을 발굴해 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박병규 광산구청장,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 사례 발표

오늘 국회토론회

‘광주형 일자리’의 설계자로 알려진 박병규(사진) 광산구청장이 이번에는 자기 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의 제안을 위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의 사례 발표자로 참여한다.
광산구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차기 정부 일자리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 박병규 구청장이 참석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속가능 일자리정책’ 사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노동포럼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이학영, 김주영, 박해철, 신장식, 이용우 국회의원이 공동 주

최한 행사로 좌장 1명과 패널 5명을 지정해 정책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광산구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 및 사회적 대화의 범주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마련된 ‘녹서’를 별도로 전달할 계획이다.
해당 ‘녹서’의 경우 정책을 결정하기 전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에서 나온 질문을 정리 분석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최초 시도다.
박병규 구청장은 “일자리 문제는 개수가 아닌 일자리의 질을 바꾸는 데서 시작한다”며 “시민 중심의 사회적 대화로 좋은 일자리 모형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동구 ‘혼밥식당’ 참가 식당 모집

광주시 동구가 혼자서도 편한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4기 ‘혼밥식당’ 참가 식당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혼밥식당’은 혼자서 식사하기 좋은 여건을 갖춘 식당을 일컫는다. 1·2인용 테이블 설치 등 편안하게 1인 식사가 가능한 환경 및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1인 메뉴 제공 등의 혼자 식사하기 좋은 여건을 갖춘 관내 식당이면 신청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누리집과 두드림(광주 동구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혼밥식당으로 지정되면 지정 스티커 부착과 함께 동구청 누리집, 두드림 등 SNS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류빈 기자 rubi@

서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고지 서비스

광주 5개 자치구 최초

광주시 서구가 광주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모바일로 고지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9일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2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개시했다.
서구는 그동안 주정차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과태료를 고지했으나, 연평균 5억원 이상의 우편요금을 부담해 왔다. 차량 소유자가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체납이

돼 행정 불이익을 받아 민원이 뒤따르기도 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주정차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SNS(카카오톡)와 KT 공공알림문자로 전자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 3일 이내 열람하지 않으면 추가 종이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는 방식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예산 절감 효과가 물론 과태료 납부와 수납에 대한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다”며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서비스가 지역에서 선진 사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